

계급과 계층 구분

РАПП

변혁운동에서 적대 계급·계층과 우호 계급·계층을 파악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계급이란 특정한 생산양식 내에서 생산수단과의 관계, 즉 소유 관계 여부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사회적 대립이라는 대자적 과정에서 형성된 경제적정치적 군체를 의미합니다. 마르크스는 다음과 같이 언급합니다:

“분할지 농민은 거대한 대중을 형성하며 그 성원들은 상호 간에 많은 관계를 맺지 않으면서도 유사한 조건 속에 살고 있다. 그들의 생산양식은 상호 교류를 가져오지 못하고 서로를 고립시킨다. 그 고립은 프랑스의 열악한 교통수단과 농민의 궁핍 때문에 더욱 강화되고 있다. 그들의 생산 터전인 분할지는 경작에 어떠한 분업도 과학의 적용도 허용하지 않으며 따라서 발전의 다양성, 능력의 차이, 풍부한 사회적 관계도 허용하지 않는다. 개개의 농가는 거의 자급자족하고 있으며 소비품의 대부분을 자신이 직접 생산하기에 사회적 교류보다는 자연과의 교환을 통해 생활수단을 더욱 많이 얻는다. 한 분할지, 농민, 그리고 그의 가족이 있고 그들과 나란히 다른 분할지, 다른 농민, 그리고 그 가족이 있다. [...] 한 자루의 분량의 감자들이 모여 한 자루의 감자를 이루듯이 프랑스 국민의 거대한 대중은 똑같은 크기를 단순히 더함으로써 형성된다. 수백만의 가구가 자신의 생활양식·이해관계·문화를 다른 계급의 생활양식·이해관계·문화와 구별지으며 그것에 대해 적대적으로 대립하게 하는 경제적 조건 속에서 살아가는 한 그들은 하나의 계급을 형성한다. 그러나 이들 분할지 농민들 사이에 단순한 지방적 연계만이 있는 한, 그리고 그들 간의 이해의 동질성이 그들 간에 어떠한 공통성이나 전국적 결합, 정치적 조직 등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한, 그들은 계급을 형성하지 못한다. 그렇기에 그들은 의회를 통해서나 국민공회를 통해서나 자신의 이름으로 자기 계급의 이해를 관철시킬 수 없다. 그들은 스스로를 대표할 수 없고 누군가에 의해 대표되어야 한다.” (K. 마르크스, 임지현·이종훈 역 (2017), 《프랑스 혁명사 3부작》, 소나무, pp. 313-314.)

자본주의가 세계적 수준에서 발전한 지금에 와서 계급은 프롤레타리아와 부르주아로 양분되어 있으며, 그 사이에 소부르주아가 존재합니다. 계층은 한 계급 내에서 소득 수준과 생활 양식, 민족 분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급기술자와 저임금 노동자는 계급적으로는 같은 프롤레타리아라고 할 수 있으나, 그 소득 수준과 생활 양식은 지대하게 차이가 날 수밖에 없기에, 계층은 엄연히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노동자 범주는 프롤레타리아로, 자본가 범주는 부르주아로 곧바로 동일시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잘못된 이해입니다.

가령, 노동자를 고용하지 않은 소자영업자와 자영업은 부르주아 계급에 속하지만, 자본가는 아닙니다. 자본가가 되기 위해서는 타인의 산 노동을 생산수단에 결합하는 주체로, 즉 인격화된 자본이 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자영업인데 농업 임노동자를 고용한다면, 이 사람은 자본제적 영농, 즉 자본가적 농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 자영업이나, 농업 임노동자를 고용할 여력이 없어 자기 노동을 통해 먹고 산다면, 이 사람은 부르주아이나, 자본가는 아닙니다. 물론 임노동자를 고용하더라도, 두세 명 수준의 매우 협소한 수준에서만 고용할 수 있는 자영업자의 경우도 자본가로 분류되지는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조직폭력배는 대개 한 개인으로서 소유한 생산수단이 존재하지 않는 프롤레타리아이지만 노동자는 아닙니다. 그리고 과거 수공업 직인은 길드 장인에게 노동력을 제공하고 급여를 받긴 하였으나, 수공업 직인이 명백한 프롤레타리아였던 것은 아닙니다. 자신의 노동력의 판매에서, 그것을 구매하려는 사용자와 대립적 위치에 서 있어야지만 비로소 노동자라고 할 수 있는데, 18세기 중반 이전의 조건에서는 대부분의 지역에서 노동자와 프롤레타리아 계급이 겹치지 않았습다. 다만 자본주의가 발전하면 할수록 길드장인 중 일부는 자본가로, 그리고 그들 중 일부와 직인은 프롤레타리아로 전락하면서 프롤레타리아 범주는 노동계급 범주와 동일시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러한 사회경제적 운동이 있고 나서야 비로소 프롤레타리아 ‘계급’은 노동‘계급’과 동일시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엥겔스는 이를 〈현대적 노동계급〉이라 칭합니다.

누군가가 임노동자나를 판매함에 있어, 그 노동이 가치를 만들어내느냐는 판별 요건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상업 노동자의 경우는 그 노동이 가치를 만들어내지는 않으나, 엄연히 자신의 노동력의 판매에 있어 상업 자본가와 대립을 이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마르크스, 엥겔스, 레닌, 스탈린이 직접 썼던 표현으로서 ‘중간층’이라는 용어도 존재합니다.

스탈린에 따르면, 중간층은 도시 소근로자와 농촌 소부르주아 전반을 지칭합니다. 여기서 도시 소근로자는 도시에서 생활을 영위하는 모든비(非)자본가 부르주아, 내지 반(半)프롤레타리아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반(半)프롤레타리아 범주란, 생산수단을 소유하고는 있으나, 사실상 독립적인 영업을 개시할 수 있을 정도의 생활 여건이 되지 않는 계급을 의미합니다. 보통 소부르주아와 프롤레타리아의 사이의 계급을 의미하는 용어로 쓰입니다.

마지막으로 ‘룸펜 프롤레타리아’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룸펜 프롤레타리아는 엄연히 생산수단을 소유하고 있지는 않으나, 자신의 노동력을 판매할 의지, 노동할 의지를 상실하고 무위도식하려는, 또는 그러한 의지를 가질 수 있게 하는 데 있어 물질적·정신적 수단을 완전히 상실해 버린 프롤레타리아 내 최하위 계층을 의미합니다. 거지, 밀수꾼, 조직폭력배 등이 룸펜 프롤레타리아입니다. 대부분 룸펜 프롤레타리아는 계급 대립의 외부에 존재합니다. 모든 룸펜 프롤레타리아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은 사회에 대한 매우 비합리적인 적대감을 가지고 있고, 이것을 혁명적으로 분출하려고 하기보단, 범죄적으로 분출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반동주의자들의 용병 노릇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몇 가지 구분하기 애매모호한 분류가 존재합니다. 공무원, 기업 관리자, 주식 보유 임노동자, 지식인, 프리랜서가 대표적입니다.

■ 공무원

시대가 발전함에 따라 각국 공무원들 역시 일정한 계급의식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특수한 조건 속에서 하급 공무원은 대개 생산수단을 소유하고 있지 않으며, 공무원이 아닐 경우 어떻게 해서든 자신의 노동력을 팔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프롤레타리아적입니다. 임노동자냐 아니냐의 문제에 있어 공무원이라는 범주는 꽤 복잡한 양상을 띠니다. 만약 하급공무원 임용의 주체인 중앙정부나 지방정부를 사용자라고 간주하고, 하급공무원을 자신의 노동력의 판매에 있어 그들과 대립한다고 간주한다면, 공무원은 임노동자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대립 과정이 없다고 간주한다면 공무원은 임노동자가 아닙니다.

오늘날 하급공무원과 그 임용의 주체인 정부 간의 관계에서 급여를 놓고 대립이 일정 형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하급공무원을 임노동자로 간주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공기관 계약직의 경우는 노동력 판구매의 대립이 명확하기 때문에 확실히 임노동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 고위 공무원의 경우는 생산수단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가 빈번하기에, 대개 부르주아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자본가라고 규정할 수는 없습니다.

■ 기업 관리자

기업 관리자는 소속된 기업의 규모에 따라 달리 분류될 수 있습니다. 가령, 대기업 관리자의 경우 생산수단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가 흔하고, 기업 내에서 생산수단에 다량의 산 노동을 결합함에서 직접적인 지도 역할을 하기 때문에 부르주아 계급이자, 자본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 소기업의 경우 관리자가 생산수단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가 드물고, 해당 기업에서 생산수단에 산 노동을 결합하는 데 있어 일정 역할을 맡는다고 하더라도 그 규모가 협소하기에 고급 임노동자에 가깝습니다.

■ 주식 보유 임노동자

주식을 보유하였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노동력 상품을 팔지 않을 경우 생활 유지가 어려우면 프롤레타리아이며, 임노동에 종사하고 있으면 임노동자입니다. 쉽게 말해, 대다수 소주주는 아무리 주식 지분의 일부를 소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대상 자본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끼칠 수 없으며, 어차피 자신의 노동력을 팔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부르주아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만약 특정 기업에서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정도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다면 부르주아이며, 임노동자의 외관을 지녔다 할지라도, 엄연히 말해 자본가입니다.

■ 지식인

지식인은 계급이 아니라 사회집단, 계층입니다. 지식인 기준은 생산력의 성숙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령, 일제강점기 고보졸자는, 그 학력만으로도 지식인이라 할 수 있었으나, 오늘날에 와서는 고졸 학력만 가지고는 지식인이라 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오늘날 대졸자라고 하여도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요구하는 복잡 노동 능력을 갖고 있지 않을 확률이 적지 않기에, 대졸 학력만 가지고는 지식인이라 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지식인은 한 사회의 생산력 발전 수준에서 일반적으로 복잡 노동이라고 판단되는 노동력을 제공할 수 있는 임노동자를 뜻하거나, 아니면 복잡 노동과 동일성을 지닌 기능을 갖춘 부르주아 전반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지식인 범주는 부르주아이면서 자본가일 수 있고, 소부르주아일 수 있고, 또한 프롤레타리아일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계급 대립에서 정신적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는 모든 성원을 유기적 지식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정의에 따르면, 역사적으로 존재하였던 모든 혁명가는 한편으로는 유기적 지식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프리랜서

프리랜서는 자신이 기능할 수 있는 특수한 노동을 통해 독립 소사업 활동을 영위할 수 있는 모든 사회집단을 가리킵니다.

프리랜서는 자신의 노동과 생산수단을 결합하는 주체로서의 소부르주아입니다. 예를 들어, 독립 소사업인으로서 일러스트레이터는 자신의 생산수단인 컴퓨터와 기타 작업 도구를 자신의 산 노동과 결합시켜 상품으로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프리랜서는 어디까지나 독립 소사업인으로서, 자기 노동을 통해 벌어먹고 살기 때문에 자본가는 아닙니다.